

부모양육태도가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간 다집단분석*

함영년** · 박분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총 2,377명(남학생 1,287명, 여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과 성별 간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집단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협동의식, 학업활동 및 행복감에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청소년의 협동의식은 학업활동에 정적효과를 나타내며, 학업활동은 행복감에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남녀 집단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활동 간 관계에서 협동의식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는 학업활동의 부분매개효과뿐만 아니라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 집단에서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활동에 부적효과를, 협동의식은 행복감에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남학생 집단에서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 간 관계에서 학업활동에 의한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넷째, 성별 간 다집단분석에서의 집단 간 경로 차이는 학업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성별 차이와 함께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양육태도, 협동의식, 학업활동, 행복감, KCYPS 201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bbh2171@hanmail.net

I. 서론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며 그 사람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필수적이다(신승배, 2016; Sarriera, Bedin, Abs, Calza & Casas, 2015).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이라도 부모, 친구 및 교사와 잘 지내는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 결정요인이다(Cunsolo, 2017).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이며(Ripley & Worthington, 2002), 친사회적 행동은 행복감을 유발한다(서은국, 2014).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기의 발달과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행복감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이유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회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염유식, 김경미, 2019),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와 대학입시를 위해서 행복감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상황과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김종백, 김태은, 2008), 청소년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행복감은 변화가능하다.

기존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요인들은 주로 성격, 개인특성 및 환경특성에 대한 것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진 요인이기에 행복감을 변화 가능한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라는 환경에서 통제 가능한 변인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가능한 변인으로 선행연구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고하고 있다(허성호, 정태연, 2010; Weinstein & Ryan, 2010). 여기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말하며, 자원봉사, 시민 의식 및 그룹 간 협동적 행동(cooperative behavior)과 같은 계획된 도움을 포함한다(한규석, 2020; Dovidio, Piliavin, Schroeder & Penner, 2006). 이러한 맥락에서 협동적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에 포함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역량을 의미하는 본 연구의 협동의식(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Education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

에서는 협력과 협동을 미래핵심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수준 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협동의식이 강조되고 있다(이소연, 2019). 그러나 협동의식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실 내에서의 학업활동과 관련된 교수학습방법인 협동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강인애, 정은실, 2010; 강홍숙, 강만철, 2006). 또한 협동의식이 친사회적 행동의 일부 요인으로 행복감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신승배, 2016). 이런 맥락 속에서 미래핵심역량인 청소년의 협동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학업활동과 행복감에 청소년의 협동의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성년인 청소년의 협동의식은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달라지며, 행복감은 청소년기 주요과업인 학업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부모양육태도가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은 성장기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의 격차가 성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김경애, 2018). 이에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미래핵심역량인 협동의식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증하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의미 있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학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직결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협동의식, 학업활동 그리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은 매개하는가?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부모양육태도, 협동의식, 학업활동, 행복감 관계

협동의식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역량으로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역량을 의미하며(성은모 외, 201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으로 2015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이소연, 2019). 또한 행복감은 즐거움을 느끼고 삶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Diener, 1984).

협동의식과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에서 임정아와 진영선(2017)은 한국사회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수업 중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협동해서 해결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은국(2014)도 인간의 행복은 사회적 관계의 만족감을 통해 추구될 수 있으며 인간의 친사회적인 행동은 타인과의 결속력을 높여서 삶의 즐거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협동의식도 청소년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많은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연구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행복감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격, 개인특성 및 환경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곽수란, 2018; 성은모, 김균희, 2013;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반면, 행복감이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행복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은 4년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성적이 더 높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행복한 청소년은 대학생 때 학업 적응과 목표달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구재선, 서은국, 2012). 나아가 행복감은 청소년기의 친사회적 가치관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고 주장하였다(신지은 외,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청소년들이 현재형으로 행복감을 경험해야 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생활공간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에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개인주의 사회인 서양사회와 달리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조성남, 이동원, 박선웅,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핵심변인이다(이미영, 2020; 정은선, 이자영, 2013; Gilman

& Huebner, 2006). 게다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나타내는 부모양육태도는 협동의식에 영향을 미친다(이지언, 2016).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청소년의 주된 생활 영역이 학교이고, 중학교의 학업활동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곽수란, 2009; 박영신, 김의철, 2009). 이러한 학업활동은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김은경, 2006)을 의미한다. 또한 협동의식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위한 핵심 자원이며(Gerbino, Zuffiano, Eisenberg & Castellani, 2017; Shirin, 2020; Wentzel, 2012), 친사회적 행동은 행복감을 유발한다(서은국, 2014; 황수영, 윤미선, 2018). 김청송(2009)은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행복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은 행복감이 높고(박병선, 배성우, 2012; 박현미, 박영신, 김의철, 2007), 이러한 학업성취에는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신창환, 이효녕, 김초복, 허재홍, 2018; Cunsolo, 2017).

한편, 중학교 2학년은 개인 간 발달의 격차가 성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김경애, 2018). 또한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행복도가 차이 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행복도가 더 높거나(박소연, 이홍직, 2013; 서정아, 엄지민, 2015; 심재휘, 이기혜, 2018),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신승배, 2016). 이와 같이 성별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들 간 조절효과가 있고(이기혜, 김경근, 2013), 여학생의 경우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다르게 인지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황수영, 윤미선, 2018), 청소년기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성별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양육태도는 협동의식, 학업활동,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협동의식은 학업활동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활동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동의식이 학업성취나 행복감에 미치는 관계변인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전국 중학생과 그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중학교 2학년인 청소년 2,590명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2 패널데이터 2,377명(남학생 1,287명, 여학생 1,09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분석표본에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문항이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2. 분석변수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표 1은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고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의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행복도는 이정립 외(2015)의 육아정책연구소의 행복지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김태준과 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 중 긍정적 양육태도로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부정적 양육태도로는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협동의식은 김태준, 오인아와 이영훈(2015)의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중 협동영역의 집단추진, 팔로워쉽, 갈등문제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학업활동은 개인성적과 학교생활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분석변수 내용 및 척도

요인 및 측정변수		내용 및 척도	신뢰도	
			남학생	여학생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 부모의 사랑, 관심 관련 4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따스함이 높음	.877	.884
	자율성 지지	◦ 부모신뢰, 수용, 생각이해 4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자율성 지지가 높음	.858	.862
	구조 제공	◦ 규칙이행이유 설명 3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구조제공이 높음	.775	.747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 무관심, 방해, 불만족 관련 4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거부가 높음	.789	.799
	강요	◦ 압력, 강요, 독선 관련 4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강요가 높음	.746	.761
	비 일관성	◦ 비일관적 행동과 감정관련 2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비일관성이 높음	.604	.610
협동의식	집단 촉진	◦ 그룹활동 촉진, 방법제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도움 관련 6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집단촉진이 높음	.875	.867
	팔로워쉽	◦ 그룹활동에 도움, 능력발휘 평균 2문항,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팔로워쉽이 높음	.758	.751
	갈등 문제 해결	◦ 정보공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문제점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 관련 4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갈등문제해결 능력이 높음	.813	.840
학업 활동	학업 성적	◦ 학생의 지난학기 성적수준 1문항, 5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성적수준이 높음	-	-
	학교 만족	◦ 학생의 지난학기 학교성적만족, 학교생활만족 2문항, 5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학교 만족이 높음	.402	.436
행복감	삶의 만족도	◦ 학생의 일상생활 관련만족 5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	.806	.821
	행복도	◦ 학생의 주관적 행복수준 2문항 평균, 4점척도 ◦ 점수가 클수록 행복도가 높음	.822	.763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전술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요인과 하위변수를 통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였고, 그림 1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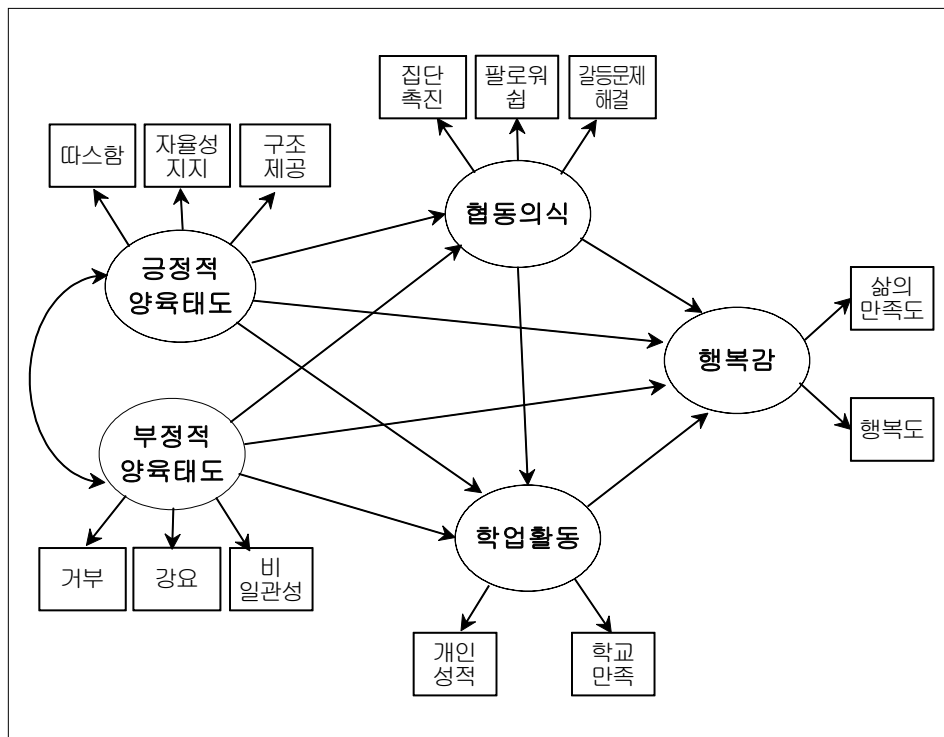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양육태도와 행복감 간 구조방정식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접근법(two-step analysis)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이후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접근법으로 진행되었다(배병렬, 2014).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며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L)이며 전체모형 적합도 판정에는 χ^2 , TLI, CFI, RMSEA 지수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량적 모형적합도인 χ^2 의 평가 기준은 $p > .05$ 이다.

또한 모형적합도의 정성적 지표인 TLI와 CFI는 각각 .95이상 값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고 RMSEA는 .05이하를 적합도 기준으로 상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 개별추정치 유의성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또한 SPSS 프로그램으로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및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되었다. 첫째,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기는 성장기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성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 간 관계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직·간접효과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넷째,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팬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Shrout & Bolger, 2002).

IV. 연구 결과

1. 측정 변수의 정규성 확인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 방법인 ML추정은 다른 추정방법보다 엄격한 다변량 정상성이라는 기본가정이 요구된다. 표 2에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상성을 제시하였다.

다변량 정상성 분석결과, 다변량 편포도 및 다변량 첨도 그리고 다변량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 검증 통계량이 크게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p = .00$ 으로 구조방정식에 투입된 13개 변수는 다변량 정상분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개별 측정변수 정상성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표 3은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으로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편포도는 $-.47 \sim .64$, 첨도는 $-.62 \sim 1.25$ 로 나타났다. 즉, 절대값 기준으로 편포도 $< .64$, 첨도 < 1.25 로써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특성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다변량 정상성 검증 결과

모형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추정값	Z값	p값	추정값	Z값	p값	x^2	p값
남학생모형 (n=1,287)	8.77	27.40	.00	244.10	24.91	.00	1371.18	.00
여학생모형 (n=1,090)	7.70	20.57	.00	228.31	18.07	.00	749.57	.00

표 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남학생 n=1,287, 여학생 n=1,090)

요인 및 측정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1.00	1.25	4.00	4.00	3.26	3.26	.54	.56	-.18	-.20	-.40	-.62
	자율성지지	1.00	1.25	4.00	4.00	3.19	3.23	.56	.57	-.34	-.28	.28	-.27
	구조제공	1.00	1.00	4.00	4.00	3.00	3.01	.59	.56	-.41	-.21	.94	.34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1.00	1.00	4.00	4.00	1.83	1.83	.62	.62	.64	.48	.31	-.30
	강요	1.00	1.00	4.00	4.00	2.19	2.12	.61	.61	.04	.14	-.16	-.34
	비일관성	1.00	1.00	4.00	4.00	1.97	1.96	.67	.66	.32	.35	-.25	-.24
협동의식	집단촉진	1.00	1.00	4.00	4.00	2.85	2.83	.55	.56	-.27	-.36	.70	.92
	팔로워쉽	1.00	1.00	4.00	4.00	3.00	3.03	.60	.62	-.28	-.39	.37	.58
	갈등문제해결	1.00	1.00	4.00	4.00	2.98	2.98	.53	.56	-.29	-.47	.74	1.25
학업활동	개인성적	1.00	1.00	5.00	5.00	3.30	3.31	.92	.89	-.03	-.14	-.32	-.22
	학교만족	1.00	1.00	5.00	5.00	3.55	3.49	.74	.73	-.17	-.12	.08	-.04
행복감	삶의만족도	1.00	1.00	4.00	4.00	2.72	2.65	.52	.55	-.05	-.02	.25	.24
	행복도	1.00	1.00	4.00	4.00	3.16	3.10	.54	.50	-.13	-.09	.50	1.01

표 4는 구조방정식에 투입된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남학생(n=1,287)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1.00												
②	.72***	1.00											
③	.57***	.62***	1.00										
④	-.53***	-.57***	-.43***	1.00									
⑤	-.38***	-.49***	-.36***	.59***	1.00								
⑥	-.49***	-.54***	-.43***	.61***	.62***	1.00							
⑦	.35***	.35***	.32***	-.23***	-.18***	-.25***	1.00						
⑧	.36***	.35***	.31***	-.28***	-.24***	-.29***	.61***	1.00					
⑨	.41***	.40***	.38***	-.28***	-.21***	-.27***	.68***	.68***	1.00				
⑩	.18***	.19***	.13***	-.17***	-.17***	-.17***	.21***	.27***	.21***	1.00			
⑪	.23***	.25***	.15***	-.20***	-.18***	-.18***	.18***	.21***	.21***	.57***	1.00		
⑫	.38***	.42***	.34***	-.25***	-.25***	-.24***	.28***	.27***	.28***	.25***	.43***	1.00	
⑬	.41***	.42***	.33***	-.36***	-.28***	-.32***	.25***	.27***	.28***	.19***	.36***	.60***	1.00

여학생(n=1,090)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1.00												
②	.72***	1.00											
③	.57***	.62***	1.00										
④	-.53***	-.57***	-.43***	1.00									
⑤	-.38***	-.49***	-.36***	.59***	1.00								
⑥	-.49***	-.54***	-.43***	.61***	.62***	1.00							
⑦	.35***	.35***	.32***	-.23***	-.18***	-.25***	1.00						
⑧	.36***	.35***	.31***	-.28***	-.24***	-.29***	.61***	1.00					
⑨	.41***	.40***	.38***	-.28***	-.21***	-.27***	.68***	.68***	1.00				
⑩	.18***	.19***	.13***	-.17***	-.17***	-.17***	.21***	.27***	.21***	1.00			
⑪	.23***	.25***	.15***	-.20***	-.18***	-.18***	.18***	.21***	.21***	.57***	1.00		
⑫	.38***	.42***	.34***	-.25***	-.25***	-.24***	.28***	.27***	.28***	.25***	.43***	1.00	
⑬	.41***	.42***	.33***	-.36***	-.28***	-.32***	.25***	.27***	.28***	.19***	.36***	.60***	1.00

*** $p < .001$

① 따스함 ② 자율성지지 ③ 구조제공 ④ 거부 ⑤ 강요 ⑥ 비밀관성 ⑦ 집단촉진
 ⑧ 팔로워쉽 ⑨ 갈등문제해결 ⑩ 개인성적 ⑪ 학교만족 ⑫ 삶의만족도 ⑬ 행복도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밀관성)는 협동의식(집단축진, 팔로워쉽, 갈등문제해결), 학업활동(개인성적, 학교만족) 및 행복감(삶의 만족도, 행복도)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측정변수 평균차이 검증

표 5는 13개 측정변수의 성별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13개 측정변수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4개 변수는 강요, 학교만족, 삶의 만족도, 행복도이다. 그리고 유의한 변수의 평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측정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인 행복감 측정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인과관계 맥락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차이와 인과관계 맥락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표 5

측정변수의 성별 평균차이 분석 (남학생 n=1,287, 여학생 n=1,090)

측정변수	평균		t	측정변수	평균		t
	남	여			남	여	
따스함	3.258	3.259	-.055	팔로워쉽	3.004	3.028	-.969
자율성지지	3.192	3.226	-1.484	갈등문제해결	2.978	2.979	-.010
구조제공	3.000	3.011	-.469	개인성적	3.300	3.310	-.328
거부	1.834	1.833	.059	학교만족	3.554	3.492	2.034*
강요	2.189	2.115	2.918**	삶의만족도	2.725	2.649	3.439**
비밀관성	1.969	1.961	.287	행복도	3.159	3.101	2.702**
집단축진	2.851	2.831	.877				

* $p < .05$, ** $p < .01$, *** $p < .001$

3. 측정모형 및 측정동일성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전 잠재변인들의 측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추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수인 χ^2 은 304.557($df=54$, $p=.000$) 적합하지 않으나 정성적 지표인 CFI는 .981, TLI는 .973, RMSEA는 .044로 나타나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개념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모형	$\chi^2(p)$	df	CFI	TLI	RMSEA
전체모형($n=2,377$)	304.557(.000)	54	.981	.973	.044

표 7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n=2,377$)

구분		λ				AVE	개념 신뢰도
		B	β	S.E.	C.R.		
긍정적 양육태도	→ 따스함	1,000	.825	-	-	.846	.942
	→ 자율성지지	1,088	.880	.023	46.612***		
	→ 구조제공	.849	.677	.024	34.690***		
부정적 양육태도	→ 거부	1,000	.811	-	-	.801	.923
	→ 강요	.822	.675	.033	25.079***		
	→ 비밀관성	1,134	.854	.033	34.108***		
협동의식	→ 집단촉진	1,000	.791	-	-	.866	.951
	→ 팔로워쉽	1,089	.786	.027	39.743***		
	→ 갈등문제해결	1,116	.892	.026	43.075***		
학업활동	→ 개인성적	1,000	.574	-	-	.679	.799
	→ 학교만족	1,367	.960	.091	15.002***		
행복감	→ 삶의만족도	1,000	.792	-	-	.840	.913
	→ 행복도	.931	.752	.032	28.699***		

*** $p<.001$

구체적으로 요인적재량은 .70이상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지만, 적어도 .50이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그 값이 .50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집중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쓰이는 또 다른 지표로 그 값이 .70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을 살펴보면 요인적재량은 .574~.960, AVE는 .679~.866,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799~.951로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에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개념들 간의 AVE값이 해당되는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제곱(Φ^2) 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확인되어서 측정모형은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성별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을 위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결과 (n=2,377)

구분	상관관계(Φ^2)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협동의식	학업활동	행복감
긍정적양육태도(Φ^2)	.846				
부정적양육태도(Φ^2)	-.689(.475)**	.801			
협동의식(Φ^2)	.518(.268)**	-.349(.122)**	.866		
학업활동(Φ^2)	.279(.078)**	-.249(.062)**	.264(.070)**	.679	
행복감(Φ^2)	.628(.394)**	-.453(.205)**	.417(.174)**	.498(.248)**	.840

** $p < .01$, 대각선은 분산추출지수(AVE), (Φ^2)는 상관계수의 제곱

2) 측정동일성 검증

다집단분석을 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이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은 각각 다른 집단으로부터 얻어진 표본의 측정도구, 혹은 측정모델이 서로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형태동일성, 요인계수동일성, 절편동일성을 만족하면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line, 2015). 측정동일성 검증은 χ^2 검증(Muthén & Muthén, 2012)과 ΔCFI 으로 조사된다(Cheung & Rensvold, 2002; Meade, Johnson & Braddy, 2008).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고 ΔCFI 보다 덜 민감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ΔCFI 는 모델 복잡성과 표본 크기와는 무관하며 ΔCFI 가 0.01보다 작으면 모형의 동질성을 나타낸다(배병렬, 2014; Cheung & Rensvold, 2002; Meade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과 ΔCFI 차이검증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표 9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Delta \chi^2$	Δdf	p	ΔCFI
형태동일성	373.133	108	.981	.972	.032				
요인계수동일성 ¹⁾	385.420	116	.980	.973	.031	12.287	8	.139	-.001
절편동일성 ²⁾	432.882	129	.978	.973	.031	47.462	13	.000	-.002

1) 요인계수동일성(Metric invariance):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절편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첫째, 형태동일성의 적합도는 χ^2 은 373.133($p < .001$), TLI는 .972, CFI는 .981, RMSEA는 .032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요인계수동일성 대한 검증 결과 $\Delta \chi^2(8)=12.287$ 로, $p=.139$ 로 유의하지 않고, 또한 ΔCFI 검증도 0.01을 넘지 않아 요인계수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절편동일성 검증 결과는 $\Delta \chi^2(13)=47.462$ 로, $p=.000$, $\Delta CFI=-.002$ 로 $\Delta \chi^2$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상대적 적합도 지수의 결과(ΔCFI 가 .01이하)를 통해 절편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다집단분석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하고 개별 경로를 비교하였다.

3. 부모양육태도, 협동의식, 학업활동 및 행복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표 10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이다.

표 10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모형	$\chi^2(p)$	df	CFI	TLI	RMSEA
남학생모형(n=1,287)	221.853(.000)	54	.977	.966	.049
여학생모형(n=1,090)	151.283(.000)	54	.985	.978	.041
다집단모형(n=2,377)	373.133(.000)	108	.981	.972	.032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량적 적합도 지수인 χ^2 은 남학생모형이 221.853(df=54, $p=.000$), 여학생모형은 151.283(df=54, $p=.000$)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지 않지만, 정성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는 각각 남학생모형은 .977, .966, 여학생모형은 .985, .978로 모두 .95이상이며, RMSEA는 남학생모형은 .049, 여학생모형은 .041로 모두 .05이하이다. 따라서 표 10에서 확인되듯이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남녀 집단 간 분석 결과 및 집단 간 경로차이 결과

전술한 표 9에서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서 표 11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및 경로차이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집단 간 경로차이가 유의한 경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공통적인 결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협동의식(남학생 $\beta=.50$, $p<.001$ / 여학생 $\beta=.57$, $p<.00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학업활동(남학생 $\beta=.11$, $p<.05$ / 여학생 $\beta=.14$, $p<.0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행복감(남학생 $\beta=.50$,

$p<.001$ / 여학생 $\beta=.50$, $p<.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협동의식→학업활동(남학생 $\beta=.18$, $p<.001$ / 여학생 $\beta=.16$, $p<.001$)과 학업활동→행복감(남학생 $\beta=.30$, $p<.001$ / 여학생 $\beta=.39$, $p<.001$)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로 대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협동의식, 학업활동 및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 추정치 및 집단 간 경로 차이 결과

경로	남학생모형			여학생모형			집단 간 경로차이
	B	β	S.E.	B	β	S.E.	
긍정적양육태도→협동의식	.49***	.50	.04	.54***	.57	.05	.74
긍정적양육태도→학업활동	.12*	.11	.06	.16*	.14	.07	.38
긍정적양육태도→행복	.45***	.50	.04	.48***	.50	.06	.35
부정적양육태도→협동의식	.00	.00	.04	.03	.04	.04	.49
부정적양육태도→학업활동	-.14**	-.13	.05	-.09	-.08	.05	.76
부정적양육태도→행복	-.04	-.05	.04	.04	.05	.04	1.62
협동의식→학업활동	.21***	.18	.05	.20***	.16	.05	-.09
협동의식→행복감	.06*	.07	.03	.07	.07	.04	.11
학업활동→행복감	.24***	.30	.03	.32***	.39	.03	2.06*

* $p<.05$, ** $p<.01$, *** $p<.001$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다른 결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는 협동의식→행복감($\beta=.07$, $p<.05$)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학업활동($\beta=-.1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그 경로들이 유의하지 않았다.

남녀 집단 간 경로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학업활동→행복감(남학생 $\beta=.30$, $p<.001$ / 여학생 $\beta=.39$, $p<.001$)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에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경로는 남녀 집단 간 경로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 간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방해오차(ζ)를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해오차는 수리적으로 $1-R^2$ 이며, 독립

요인이 종속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양육 태도, 협동의식, 학업활동이 청소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방해오차가 남학생모형이 .49, 여학생모형이 .48로 추정되었다. 이에 부모양육태도, 협동의식, 학업활동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51%~52%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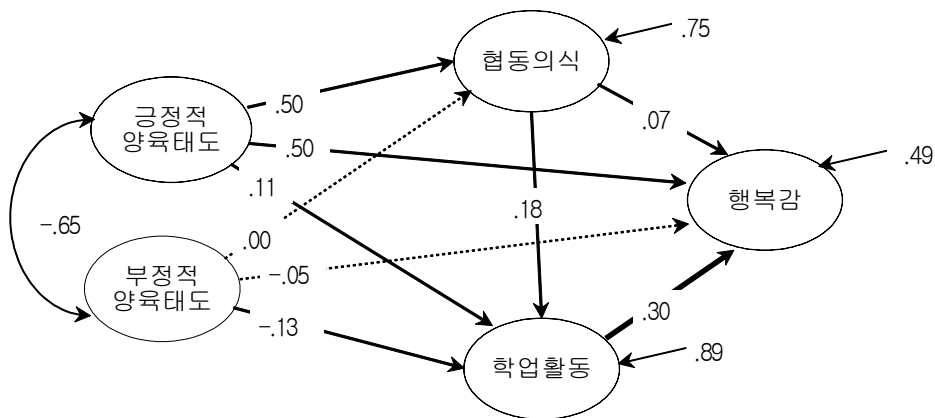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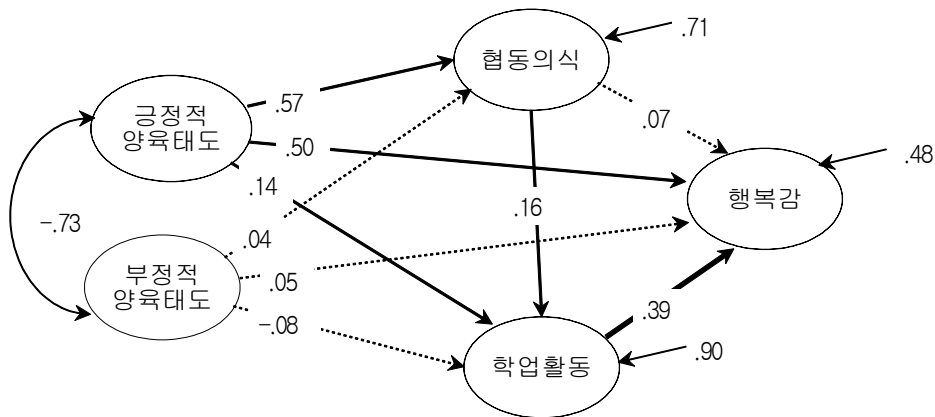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 모형

2)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다중매개모형으로써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팬텀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표 12는 구조방정식모형의 각 변인들 간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표 13은 개별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을 팬텀변수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

구조방정식모형의 변인 간 직·간접효과

경로	남학생모형(n=1,287)			여학생모형(n=1,090)		
	표준화계수(β)			표준화계수(β)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긍정적 양육태도 → 학업활동	.20**	.11*	.09**	.23**	.14*	.09**
양육태도 → 행복감	.59**	.50**	.09**	.63**	.50**	.13**
부정적 양육태도 → 학업활동	-.13**	-.13**	.00	-.08	-.08	.00
양육태도 → 행복감	-.09	-.05	-.04**	.03	.05	-.02
협동의식 → 행복감	.12**	.07	.05**	.13*	.07	.06**

* $p < .05$, ** $p < .01$

분석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의식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학업활동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여학생 집단의 협동의식, 학업활동,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매개효과가 남학생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상이한 점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활동의 완전매개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그 외의 경로는 표 13에서 확인되듯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행복감 간 관계에서 직접효과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남학생모형(n=1,287)		여학생모형(n=1,090)	
		Estimate(SE)	95%신뢰구간	Estimate(SE)	95%신뢰구간
긍정적 양육 태도	→협동의식→행복감	.031(.019)	-.007~.067	.037(.023)	-.007~.082
	→협동의식→학업활동	.100(.054)**	.018~.231	.107(.040)**	.034~.197
	→협동의식→학업활동	.024(.011)**	.005~.047	.034(.013)**	.012~.063
	→행복감				
	→학업활동→행복감	.029(.014)*	.003~.057	.051(.024)*	.008~.099
부정적 양육 태도	→협동의식→행복감	.000(.003)	-.005~.009	.002(.004)	-.003~.016
	→협동의식→학업활동	.001(.011)	-.018~.027	.006(.010)	-.011~.030
	→협동의식→학업활동	.000(.002)	-.004~.006	.002(.003)	-.003~.010
	→행복감				
	→학업활동→행복감	-.033(.014)**	-.064~-.008	-.027(.018)	-.064~.005

* $p<.05$, **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집단 공통적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로 대할수록 자녀의 협동의식, 학업활동 및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협동의식이 높을수록 학업활동이 좋아지며, 학업활동이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협동의식,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협동의식, 학업활동,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협동의식을 통해서 공동목표를 위해 그룹 활동을

돕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성취경험이 자연스럽게 중학생들의 학업활동 만족으로 귀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남녀 집단에서 상이한 결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협동의식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소연(2019)의 PISA 2015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인 팀 작업 상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협동의식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황수영과 윤미선(2018)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게는 협동의식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같은 다른 요인이 행복감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 함께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학생 집단에서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부정적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활동의 완전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로 청소년 자녀를 대할수록 학업활동과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승, 양미진과 이태영(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녀에게는 거부, 강요,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김은설과 최혜선(2008)의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한국사회 부모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학업능력이 높기를 가장 바라는 반면, 딸에 대해서는 신체 및 용모가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양육관 차이로 아들에게 더 높은 학업능력을 강조하는 한국의 부모양육태도가 남학생에게 부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남녀 집단별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협동의식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긍정적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학업활동의 부분매개효과와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그 매개효과의 크기도 일관되게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양육태도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협동의식의 매개효과는 한국사회 중학생들이 임정아와 진영선(201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경쟁적인 현실 속에서도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자신의 학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 학업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집단

간 경로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현정, 손수경과 홍세희(2018)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년까지 종단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인 학교 학습활동이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 현실상 적극적인 학습활동이 선행되어야 행복감에 도달한다는 점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곽수란(2018)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성취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가 남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 시기에서 학업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효과가 시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종단연구를 통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행복감 제고를 위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같은 표본 대상이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추적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변인들 간의 종단 및 변화추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종단연구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미래핵심역량인 협동의식과 행복감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감이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양방향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애, 정은실 (2010). 팀 구성 방식에 따른 학습활동 만족도: 질적 자료 분석에 의한 사례연구. **교육방법연구**, 22(3), 67-95. doi:10.17927/tkjems.2010.22.3.67
- 강홍숙, 강만철 (2006). 협동학습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15(1), 69-82.
- 곽수란 (2009). 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패널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9(4), 1-20. doi:10.32465/ksocio.2009.19.4.001
- 곽수란 (2018). 청소년기 미래 목표의식이 초기 성인기 개인역량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KEDI] 한국교육**, 45(4), 1-32. doi:10.22804/jke.2018.45.4.001
-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1-20. doi:10.21193/kjspp.2012.26.2.003
- 권승, 양미진, 이태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4(2), 241-258. doi:10.35151/kyci.2016.24.2.012
- 김경애 (2018).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II)** (RR2018-05).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경 (2006). 대학생 학업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대학의 수월성 제고 방안: 한국과 미국대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 김은설, 최혜선 (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연구보고 2008-06). 서울: 육아정책 개발센터.
- 김종백, 김태은 (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2(1), 259-279.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doi:10.17315/kjhp.2009.14.3.011
- 김태준, 오인아, 이영훈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15-32-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doi:10.21509/KJYS.2017.03.24.3.313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연구**, 21(2), 대한스트레스학회.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801-836
- 박현미, 박영신, 김의철 (2007). 학교유형과 학업성취가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신뢰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18.
- 배병렬 (2014). **Amos 21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청람.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파주: 21세기북스.
- 서정아, 엄지민 (2015).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 데이터분석보고서 1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 13-R50). 서울: 여성가족부.
-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35-184. doi:10.15818/ihss.2016.17.3.13
-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doi:10.21193/kjspp.2013.27.3.001
- 신창환, 이효녕, 김초복, 허재홍 (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2), 155-171. doi:10.16881/jss.2018.04.29.2.155
- 심재휘, 이기혜 (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성별 및 학업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1), 199-225. doi:10.29318/KER.24.1.8
- 염유식, 김경미 (2019).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기혜, 김경근 (2013). 중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3), 139-168. doi:10.32465/ksocio.2013.23.3.00

- 이미영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포럼**, 64, 115-135. doi:10.17854/ffyc.2020.10.64.115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doi:10.16881/jss.2015.10.26.4.41
- 이소연 (2019). 우리나라 학생의 협력에 대한 태도: PISA 2015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교육**, 58(1), 90-110. doi:10.37561/sse.2019.03.58.1.99
-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신경 (2015). **한국아동패널20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지연 (2016). **청소년기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의 발달 궤적과 학교 영역 예측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정, 손수경, 홍세희 (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9(1), 209-238. doi:10.14816/sky.2018.29.1.209
- 임정아, 진영선 (2017).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청소년문화포럼**, 52, 133-162. doi:10.17854/ffyc.2017.10.52.133
- 정은선, 이자영 (2013).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강인성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04-215. doi:10.5392/JKCA.2013.13.09.204
- 조성남, 이동원, 박선웅 (2002).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또래집단,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 허성호, 정태연 (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43-164.
- 한규석 (2020).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황수영, 윤미선 (2018). 청소년의 공감, 친사회적 행동, 학교행복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4(1), 173-197. doi:10.29318/KER.24.1.7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233-255. doi:10.1207/S15328007SEM0902_5
- Cunsolo, S. (2017). Subjective wellbeing during adolescence: A literature review on key factors relating to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education outcomes. *Studi sulla Formazione*, 20(1), 81-94. doi:10.13128/Studi_Formaz-20941

- Diener, E. 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10.1207/s15327752jpa4901_13
- Dovidio, J. F., Piliavin, J. A., Schroeder, D. A., & Penner, L. (2006). *The social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erbino, M., Zuffianò, A., Eisenberg, N., & Castellani V. (2017).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Predicts Good Grades Beyond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86(2), 247-260. doi:10.1111/jopy.12309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293-301. doi:10.1007/s10964-006-9036-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11-131. doi:10.1037/1089-2680.9.2.111
- Meade, A. W., Johnson, E. C., & Braddy, P. W. (2008). Power and sensitivity of alternative fit indices in tests of measurement invariance.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568-592. doi:10.1037/0021-9010.93.3.568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Chi-square difference testing using the Satorra-Bentler Scaled Chi-Square*. Retrieved from <http://www.statmodel.com/chidiff.shtml>
- Ripley, J. S., & Worthington, E. L., Jr. (2002). Hope-focused and forgiveness-based group interventions to promote marital enrich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4), 452-463. doi:10.1002/j.1556-6678.2002.tb00212.x
- Sarriera, J. C., Bedin, L., Abs, D., Calza, T., & Casas, F. (2015).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Brazilian adolescents. *Universitas Psychologica*, 14(2), 459-474. doi:10.11144/Javeriana.upsy14-2.rbss

- Shirin, A. (2020).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rosocial behavior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Dhaka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Reviews in Education*, 6(2), 6-1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 Weinstein, N., & Ryan, R. M. (2010).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helpe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22. doi:10.1037/a0016984
- Wentzel, K. R. (2013).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G. E. Miller, & I. B. Wein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p. 213-231). John Wiley & Sons, Inc.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ooperation and academic activity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happines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s

Ham, Youngran* · Park, Bunhee**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cooperation and academic activity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adolescents' happiness and to verify any gender differences which may exist. Using data from KCYPS 2018(second yea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s were conduct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in both groups showed positive effects on cooperation, academic activity, and happiness. Second, academic activity was not only individual partial-mediated, but also the dual-mediated effect of cooperation and academic activity between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happiness in both groups. Third, cooperation of boy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happiness. Additionally, the academic activity of boys was fully mediated betwee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happiness.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only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effect of academic activity on adolescents' happiness.

Key Words: parenting attitudes, adolescents' happiness, cooperation, academic activity, multigroup analysis

투고일: 2021. 3. 6, 심사일: 2021. 5. 4, 심사완료일: 2021. 5. 11

* Mokpo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bbh2171@hanmail.net